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 사 김 명 회*

부 교 수 최 연 실**

Sangmyung Univ., Dept. of Family Welfare

Master : Kim, Myoung-Hee

Associate Professor : Choi, Youn-Shil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basic materials that assist in marital counselling and marital therapy intervention through its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ts systematic focus on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of social interest and import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arried men and women, aged 40 to 59,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Seoul and Gyeonggi; the study excluded those who were divorced, bereaved or whose last child was in over high school, but included those who were separated or in a second marriage. A total of 396 people, 134 men and 262 women,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iddle-aged married men recorded higher levels of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than middle-aged married women. While women show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han me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intim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Third,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were shown to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both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Of the two, marital communication had more the influence. Marital communication also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levels of depression among both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주요어(Key Words) : 중년기(middle-aged), 부부의사소통(marital communication),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 주 저 자 : 김명희 (E-mail : michelle2641@hanmail.net)

** 교신저자 : 최연실 (E-mail : yschoi@smu.ac.kr)

I. 서 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층 진입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점차 중년층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자녀수의 감소와 더불어 가족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 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중년기가 장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전체 인구 중 중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 40대 12.4%, 50대 8.9%, 2000년 40대 15.1%, 50대 9.4%, 2005년 40대 17.1%, 50대 10.9%로 중년층의 증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인구학적 변화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통계청, 1995, 2000, 2005).

중년층의 인구 증가와 중년기의 장기화로 인한 현상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상담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20여 년을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바쁘게 살아오면서 중년기에 들어선 부부들은 이 시기에 청소년기나 청년기, 성인기에 들어서게 되는 자녀들의 정서적·물리적 독립을 맞게 된다. 따라서 중년기에 있는 부부들은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돌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점진적으로 자녀들이 성장, 독립해감에 따라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중년기에 부부들은 커플로서의 위치를 다시 성찰해 보고 변화에 따라 역할 조정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 시기에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기 시작한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나 사랑은 가라앉은 측면이 있지만, 부부로서의 동료애나 동반자의식이 부부로서의 애정에 주요한 기반이 되는 중년기 부부는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며(김명자, 1998), 그에 따라 중년기의 부부관계는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평가는 가족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서 작용하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면 가족 내 개인의 심리적 복지가 위협받게 되는 역기능적인 가족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연실, 1993). 부부관계의 영향력은 가족 내 다른 개인,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도 미치지 않지만, 당사자인 남편과 부인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보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심리적 복지란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심리적 복지란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장재정, 1987). 따라서 중년기의 부부관계 경험에 따른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는 생활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함께 볼 수 있으며 다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한편, 중년기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수로서는 부부의 관계적 요소인 부부의사소통과 부부 친밀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쌍방적인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보편적인 요소는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가 사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 관심, 존경, 애정, 지식,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부부의 행복, 즉 심리적 복지는 증가할 것이다(옥선화·정민자, 1995). 부부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징적인 매개물을 사용하여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서 부부만족과 직결되고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여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부부 갈등이 낮고, 갈등발생 시 이를 잘 조정할 수 있으며(조유리, 2000), 부부 간의 의사소통 갈등이 심하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이주희, 1999), 의사소통은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변수로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중년기 부부들은, 그동안 주로 자녀의 생활을 주제로 대화를 하거나 자녀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 대화거리가 없어져서 서먹해 하거나 서로가 이방인처럼 느낄 수도 있다. 요컨대, 중년기의 부부의사소통은 부부 간의 친밀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중년기를 경험하는 개인의 심리적 복지와도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부부친밀감이란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수용하는 상호공유적인 인지적·정서적·성적 밀착성의 정도이다.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부부친밀감은 개인의 심리적 복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이경희, 1998). 부부친밀감이 부부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친밀감 부재 시 더욱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부부 간 친밀감의 결여는 이혼사유로 가장 빈번히 거론되었으며(Waring, 1984; Moss & Schwebel, 1993),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사회적·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적 장애를 유발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Patton & Waring, 1984; 이경희, 1995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의 정도는 개인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복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tonucci, 1990; 이선미, 2001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년기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중년기 부부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남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과 관련 변인들을 검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중년기 부부관계의 구체적인 현실 분석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중년기에 초점을 맞춘 부부상담 및 부부치료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생활만족도, 우울)는 배경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생활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중년기

인간발달은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으로서 개인 내적 혹은 사회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연령에 의한 구분으로, 이러한 구분에서는 중년기가 몇 세에 시작하여 몇 세에 끝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생활연령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도 중년기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상이하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중년기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면, Jaques(1965), Sheehy(1976), Gould(1978)는 35~45세, Erickson(1956)은 40~60세, Neugarten 와 Gutmann(1958)은 40~70세로 중년기로 구분하였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에서 중년기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면, 김중서 등(1982), 서봉연과 유안진(1983), 김애순(1993)은 35~60세, 장재정(1987)은 30~60세, 김명자(1989)는 40~59세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김명자, 1989에서 재인용).

중년기를 가족생활주기에 의해 구분한 것을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대부분 중년기의 시작을 자녀의 독립과 관련시켜 구분하고 있으며, 막내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집을 떠나는 빈 둥지시기(empty-nest period)를 중년기의 시작점

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를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때의 문제점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막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을 중년기의 시작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며, 막내 자녀가 결혼을 하여도 부모로부터 완전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이미나, 2000),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중년기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년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경향을 토대로, 생활연령상으로는 40~59세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생활주기로는 막내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이상에 해당하는 기혼 남녀들이 속해 있는 발달상의 기간을 중년기로 정의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년기는 평균자녀수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이전 세대보다도 부모역할을 수행한 이후의 시기가 더 증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년기는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부부관계가 다시 중요한 하위체계로 부상함에 따라 중년기는 가족의 정체성과 정서적 분위기 및 가정관리와 관련된 규칙과 가족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현숙·유계숙, 2001).

가족체계 내에서 부부관계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부부 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상호인식은 부부체계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중년기 이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정현숙, 2001). 중년기에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게 되면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부각되며, 중년기의 부부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들은 동반자의식과 상호보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중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상태, 막내자녀 위치, 가족구성, 교육, 직업, 소득, 종교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여가활동, 대화시간, 대화주제 등의 부부관련 변인, 그리고 병원 다니는 횟수, 질병 개수, 입원 횟수 등의 건강관련 변인 등이 다양한 중년기 부부관계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민, 2004; 김경신·김정란, 2001; 김애순, 1993; 김윤민, 2003; 김태현·김양호, 2003; 박수정, 1992; 박정희, 1999; 박준희, 2004; 서정아, 1998; 신기영, 1999; 이경화, 2003; 장재정, 1987;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 이 변인들의 영향력은 연구들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그러한 변수들이 부부의사소통이나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 변수들을 배경변인들로 다루고자 한다.

중년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동시에 존재한다. 전자에서는 중년기 위기가 불가피하거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며, 오히려 이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로서 적응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본다(신기영, 1999;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 한편, 후자에서는 중년기를 대체로 위기나 혼돈의 시기로 파악한다(김경신·김정란, 2001; 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박준희, 2004; 이정화,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모두 고려하여 중년기에 접근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2. 부부의사소통

부부관계에서는 의사소통의 질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관계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시키고,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에 진실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박민지, 2006).

부부 간의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징적인 매개물을 사용하여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서, 이는 부부만족과 직결되고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여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oller & Fitzpatrick, 1990). 즉,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함께 사이 좋게 지내는 법을 배우고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감정적 차원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상호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사소통은 개인의 만족과 직결되며,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경신·박은주, 1996; 김미라, 2001; 박민지, 2006).

부부의사소통과 관련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Jacobson과 Magolin(1979)은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면을 보이며, 불충분한 의사소통, 불분명한 메시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 등 '병리적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그들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부부관계에서 활력의 근원이며 부부가 사려 깊게 자주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할 때 결혼생활이 더욱 성공적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Lewis와 Spanier(1979)는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결혼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부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의사표현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빈번할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정확할수록, 부부 간의 이해가 깊을수록, 그리고 감정이입이 많을수록 결혼생활의 질은 높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성호, 2001; 이정은·이영호, 2000; 임영란, 1992; 허윤정, 1997)와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이경희, 1998)에서 부부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 부부친밀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2001)는 의사소통이 원만하면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대화시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영란(1992)은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경희(1998)의 연구에서도 부부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친밀감

임상장면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부친밀감이 결여될 경우, 그것이 신체적 증상이나 부부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적·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왔다(Horowitz, 1979). 또한 부부친밀감의 결여는 선행연구들에서 이혼사유로 빈번히 거론됨으로써(Moss & Schwebel, 1993; Waring, 1984),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적 요소로 주목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와 같은 결혼생활의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면에서 개인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느낌과는 달리, 부부 두 사람 간의 개인적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으로 관계적 속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적절하다. 더 나아가 부부친밀감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복합적 상위의 개념으로서(Moss & Schwebel, 1993), 애정이나 헌신, 성적 욕구와 같은 개념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경희, 1998).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 간 친밀감과 자기노출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노출은 부부 간 친밀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 두 변인은 직선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Waring & Chelune, 1983). 또한 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부부친밀감을 보고함과 함께 배우자의 부부친밀감을 예측하여 측정하도록 한 Waring(1984)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친밀감은 친밀한 경험의 이해와 유사함, 그리고 의사소통에 근거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부친밀감을 보고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미라(2001)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으며, 부부 간의 가치관이 일치할수록 상호회피적인 의사소통을 피하고, 상호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선(2004)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부부친밀감이 정서적 밀착성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차이가 컸고, 부부 중 한 사람의 부부친밀감이 높으면 그 배우자의 부부친밀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부부친밀감도 높으며, 결혼초기 부부의 경우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민지(2006)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부부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

4.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란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심리적 복지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Bradburn(1969)은 심리적 복지가 긍정적·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와 비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인 판단을 심리적 복지라고 정의하였고(신기영, 1999에서 재인용), Bryant와 Veroff(1982)는 심리적 복지를 '생활 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자기 지각으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경향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우울, 분노, 적대감, 공포, 술과 약물남용, 심리적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역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향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심리적 복지, 즉 건강, 긍정적 정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신건강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다(Marks, 1996; 이선미, 2001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심리적 복지를 다양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정의하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측정하여 심리적 복지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복지를 생활만족도와 우울로 측정한 연구(이선미, 2001; 이경희, 2003; 조옥희, 2004),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로 측정한 연구(신기영, 1999)와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로 측정한 연구(진미정, 1993; 김윤민, 2003)가 있다. 또한 행복감과 우울감으로 측정한 연구(박수정, 1992; 김태현·김양호, 2003), 심리적 안녕으로 접근한 연구(김순기, 2001), 심리적 복지를 목적감, 통제감, 자긍심, 성숙감 등 4개 영역으로 측정한 연구(김경민, 2004)와 가정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으로 심리적 복지를 측정한 연구(김연화, 2002)가 있다.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이선미(2001)는 심리적 복지를 생활만족도와 우울로 측정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경우 자존감, 의사소통, 친밀감, 친지의 지지,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이 있으며, 부부 간 갈등은 생활만족도와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부인의 경우에는 친지의 지지, 수입, 의사소통, 친밀감, 자녀 지지,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부부 간 갈등은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만족도와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또한 우울은 남편의 경우, 자존감과 의사결정공유도는 부적 상관, 회피와 부부 간 갈등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부인의 경우, 건강상태, 자존감, 여가공유도는 부적 상관, 부부 간 갈등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조옥희(2004)는 중년기 기혼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직업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며, 우울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대해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 선행연구(이경희, 2003; 이선미, 2001; 조옥희, 2004)를 참고로,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생활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으로는 우울을 포함하였다. 생활만족도란 각 생활의 개별적인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만족상태라기보다 현재의 자신의 생활 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즉, 삶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및 현재까지의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신기영, 1999에서 재인용)을 말한다. 우울이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 중의 하나로, 전혀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정상의 범주에서부터 정신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의 범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무기력, 좌절감, 상실감 등과 같은 슬픈 혹은 울적한 기분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불면증, 피로감, 체중감소 등과 같은 부수적인 신체증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정희, 1999). 선행연구들(이경희, 2003; 이선미, 2001; 조옥희, 2004)에 따르면, 생활만족도와 우울 두 변인은 심리적 복지라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변수를 보완적으로 설명해주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N(%)			변인	N(%)				
	전체(396)	남(134)	여(262)		전체(396)	남(134)	여(262)		
연령	40~49	196(49.49)	44(32.84)	152(58.02)	본인 직업	전업주부	134(33.84)	2(1.49)	132(50.38)
	50~59	200(50.51)	90(67.16)	110(41.98)		은퇴	3(0.76)	3(2.24)	-
	평균	49.81 (S.D 4.26)	51.31 (S.D 4.07)	49.05 (S.D 4.16)		무직	2(0.51)	2(1.49)	-
결혼 상태	초혼	378(95.45)	133(99.25)	245(93.51)		전문직	71(17.93)	24(17.91)	47(17.94)
	재혼	8(2.02)	1(0.75)	7(2.67)		관리직	19(4.80)	15(11.19)	4(1.53)
	별거	10(2.53)	-	10(3.82)		사무직	40(10.10)	19(14.18)	21(8.02)
박내 자녀	고등학교	136(34.34)	49(36.57)	87(33.21)		서비스직	37(9.34)	6(4.48)	31(11.83)
	대학진학 준비	20(5.05)	6(4.48)	14(5.34)		노무직	33(8.33)	28(20.90)	5(1.91)
	취업준비	36(9.09)	15(11.19)	21(8.02)		자영업	56(14.14)	34(25.37)	22(8.40)
	대학(원)생	144(36.36)	45(33.58)	99(37.79)		기타	1(0.25)	1(0.75)	-
	취업	29(7.32)	8(5.97)	21(8.02)	전업주부	83(20.96)	82(61.19)	1(0.38)	
	군복무	25(6.31)	11(8.21)	14(5.34)	은퇴	4(1.01)	-	4(1.53)	
	결혼	6(1.52)	-	6(2.29)	무직	9(2.27)	1(0.75)	8(3.05)	
교육 수준	무학	1(0.25)	-	1(0.38)	전문직	66(16.67)	11(8.21)	55(20.99)	
	초졸	8(2.02)	3(2.24)	5(1.91)	관리직	42(10.61)	-	42(16.03)	
	중졸	32(8.08)	11(8.21)	21(8.02)	사무직	40(10.10)	4(2.99)	36(13.74)	
	고졸	188(47.47)	65(48.51)	123(46.95)	서비스직	27(6.82)	19(14.18)	8(3.05)	
	전문대졸	30(7.58)	10(7.46)	20(7.63)	노무직	29(7.32)	5(3.73)	24(9.16)	
	대졸	113(28.54)	32(23.89)	81(30.92)	자영업	96(24.24)	12(8.96)	84(32.06)	
본인 종교	대학원졸	24(6.06)	13(9.70)	11(4.20)	없음	122(30.81)	4(2.99)	118(45.04)	
	기독교	208(52.53)	53(39.55)	155(59.16)	100만원 이하	28(7.07)	3(2.24)	25(9.54)	
	천주교	38(9.60)	8(5.97)	30(11.45)	101~200	80(20.20)	35(26.12)	45(17.18)	
	불교	65(16.41)	30(22.39)	35(13.36)	201~300	69(17.42)	36(26.87)	33(12.60)	
	무교	85(21.46)	43(32.09)	42(16.63)	301~400	52(13.13)	25(18.66)	27(10.31)	
배우자 종교	기독교	178(44.95)	58(43.28)	120(45.80)	401~500	23(5.81)	12(8.96)	11(4.20)	
	천주교	34(8.59)	10(7.46)	24(9.16)	501만원 이상	22(5.56)	19(14.18)	3(1.15)	
	불교	71(17.93)	32(23.88)	39(14.89)	10분 이하	139(35.10)	42(31.34)	97(37.02)	
	무교	113(28.54)	34(25.37)	79(30.15)	10~30분	131(33.08)	53(39.55)	78(29.77)	
배우자 소득	없음	80(20.20)	76(56.72)	4(1.53)	30~1시간	69(17.42)	22(16.42)	47(17.94)	
	100만원 이하	23(5.81)	14(10.48)	9(3.44)	1~2시간	34(8.59)	15(11.19)	19(7.25)	
	101~200	70(17.68)	23(17.16)	47(17.94)	2시간 이상	23(5.81)	2(1.49)	21(8.02)	
	201~300	85(21.46)	8(5.97)	77(29.39)	일상생활	181(45.71)	64(47.76)	117(44.66)	
	301~400	65(16.41)	10(7.46)	55(20.99)	부부	11(2.78)	1(0.75)	10(3.82)	
	401~500	37(9.34)	2(1.49)	35(13.36)	재정	40(10.10)	15(11.19)	25(9.54)	
	501만원 이상	36(9.09)	1(0.75)	35(13.36)	건강	24(6.06)	11(8.20)	13(4.96)	
	부부	19(4.80)	7(5.22)	12(4.58)	자녀	95(23.99)	25(18.66)	70(26.72)	
가족 구성	부부+자녀	310(78.28)	101(75.37)	209(79.77)	직장	9(2.27)	3(2.24)	6(2.29)	
	조부모+부부	2(0.51)	1(0.75)	2(0.38)	부모·친지	11(2.78)	4(2.99)	7(2.67)	
	조부모+부부+자녀	56(14.14)	24(17.91)	31(12.22)	종교	21(5.30)	10(7.46)	11(4.20)	
	기타	9(2.27)	1(0.75)	8(3.05)	기타	4(1.01)	1(0.75)	3(1.15)	
	본인 여가	안 간다	229(57.83)	73(54.48)	156(59.54)	대화 주제	일상생활	181(45.71)	64(47.76)
1~2회		155(39.14)	57(42.54)	98(37.40)	부부		11(2.78)	1(0.75)	10(3.82)
3~5회		9(2.27)	2(1.49)	7(2.67)	재정		40(10.10)	15(11.19)	25(9.54)
6~8회		2(0.51)	1(0.75)	1(0.38)	건강		24(6.06)	11(8.20)	13(4.96)
9회 이상		1(0.25)	1(0.75)	-	자녀		95(23.99)	25(18.66)	70(26.72)
없다		220(55.56)	76(56.72)	144(54.96)	직장		9(2.27)	3(2.24)	6(2.29)
배우자와 여가	1가지	115(29.04)	39(29.10)	76(29.01)	부모·친지		11(2.78)	4(2.99)	7(2.67)
	2가지	50(12.63)	16(11.94)	34(12.98)	종교		21(5.30)	10(7.46)	11(4.20)
	3가지	10(2.53)	3(2.24)	7(2.67)	기타		4(1.01)	1(0.75)	3(1.15)
	4가지	1(1.25)	-	1(0.38)	병원 횟수		안 간다	229(57.83)	73(54.48)
	없다	314(79.29)	116(86.57)	198(75.57)	1~2회	155(39.14)	57(42.54)	98(37.40)	
입원 횟수	1회	60(15.15)	10(7.46)	50(19.08)	3~4회	9(2.27)	2(1.49)	7(2.67)	
	2회	12(3.03)	7(5.22)	5(1.91)	5~6회	2(0.51)	1(0.75)	1(0.38)	
	3회	7(1.77)	1(0.75)	6(2.29)	7회 이상	1(0.25)	1(0.75)	-	
	4회 이상	3(0.76)	-	3(1.15)	없다	220(55.56)	76(56.72)	144(54.96)	

2. 측정도구

1)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성별, 결혼상태, 막내자녀, 교육수준, 본인소득과 배우자 소득, 본인과 배우자 직업, 본인과 배우자의 종교 유무, 가족구성 등의 인구사회학적 관련변인의 문항들과 본인과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대화시간, 대화주제 등 부부관련변인의 문항, 병원 다니는 횟수, 질병개수, 입원횟수 등의 건강관련변인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2) 부부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사소통 척도로 한국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 타당화 작업을 시도한 나희수(1998)의 ENRICH(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척도에서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부부의사소통척도는 총 10문항으로서 5점 Likert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2, 3, 4, 5, 6, 7, 9번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 $\alpha = .83$ 이었다.

3) 부부친밀감

본 연구에서는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인 이경희(1995, 1998)의 척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부부친밀감 척도는 총 15문항으로서 5점 Likert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2, 9, 14번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 $\alpha = .86$ 이었다.

4) 심리적 복지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는 하위영역으로는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포함되었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자신의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등(1975) 등의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한 진미정(1993)의 생활만족도 척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응답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총 12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에서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느낌과 가까운 점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 $\alpha = .95$ 이었다.

우울 척도로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등(1984)이 SCL-90-R을 번안, 수정한 간이정신건강 진단척도 중에서 우울항목을 선택한 진미정(1993)의 우울 척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지난 일주일동안 우울 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물어보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 $\alpha = .90$ 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2006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1주간 40~59세의 중년기 기혼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전공분야 교수와 전공분야 석·박사 이상의 연구자 5명에게 평가와 조언을 받아서 예비조사 대상자들이 응답을 꺼리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들, 단어들을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40~59세 중년기 기혼남녀로 막내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사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별과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으며 재혼과 별거 상태인 사람은 포함하였다. 본조사용 질문지는 서울시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고등학교 5개교와, 대학교 3개교, 서울 시내 중구, 종로구 소재 5개의 직장을 통해 총 500부 배포되어 445부(회수율 89%)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 기재된 49부를 제외하고 남자 134부, 여자 262부 총 396부(전체 배포 비율의 79.2%)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서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남녀 차이에 따른 t-test를 산출하였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경향

조사대상자인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과 심리적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전체 평균은 34.23(중간값: 34.00)으로 중간값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남성은 평균보다 높은 35.42, 여성은 중간값보다 낮은 33.63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t=2.57, p<.05$)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부부의사소통 수준을 보였는데($t=2.57, p<.05$),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 간에서 남녀 차이가 나지 않은 선행연구(김진희, 1998; 박민지, 2006)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중년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가 중년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 전체 평균은 52.37(중간값: 52.00)로 중간값과 비슷한 수준이며, 남성은 평균과 중간값보다 높은 54.25, 여성은 평균과 중간값보다 다소 낮은 51.40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t=2.72, p<.01$)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부친밀감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부부친밀감을 나타냈다($t=2.72, p<.01$).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부부친밀감이 여성의 부부친밀감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박민지, 2006; 양

진선, 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에서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37.07(중간값: 37.00)로 중간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남성은 평균보다 낮은 36.85, 여성은 평균과 비슷한 37.18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심리적 복지에서 우울의 평균은 22.28(중간값: 22.00)로 중간값과 비슷하다. 남성은 평균보다 낮은 21.34, 여성은 평균보다 높은 22.76으로 나타나며, 남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t=-2.17, p<.05$)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이선미,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중년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통해 살펴본 심리적 복지는 중간 수준으로서, 이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년기의 위기론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선행연구들(신기영, 1999;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막내자녀 위치, 교육수준, 본인 종교, 배우자 종교,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본인 소득, 배우자 소득, 본인 여가활동,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대화주제, 가족구성, 병원 다니는 횟수, 질병 개수, 입원 횟수 등을 배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서는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의 차이를 먼저 살펴본 후,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생활만족도와 우울로 나누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의 차이

먼저,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중년기 기혼남성의 부부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

<표 2>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

변 인	평균(표준편차)			t값	
	전체(396)	남성(134)	여성(262)		
부부의사소통	34.23(6.62)	35.42(6.13)	33.63(6.79)	2.57*	
부부친밀감	52.37(9.94)	54.25(9.03)	51.40(10.26)	2.72**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	37.07(7.87)	36.85(7.85)	37.18(7.92)	-.40
	우울	22.28(6.18)	21.34(5.63)	22.76(6.40)	-2.17*

* $p<.05$, ** $p<.01$

<표 3>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의 차이

배경변인	남 성				여 성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t (F)값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t (F)값
연령	40~49세	44	36.41(6.69)		152	33.55(6.82)		-22
	50~59세	90	34.93(5.82)	1.31	110	33.74(6.79)		
결혼상태	초혼	133	35.41(6.16)		245	33.84(6.64)	a	5.14**
	재혼	1	36.00	-1.0	7	35.43(5.06)	a	
	별거	-	-		10	27.10(8.67)	b	
막내자녀 위치	고등학생	55	35.73(7.38)		101	33.43(7.66)		.11
	대학생·취업	79	35.20(5.13)	.46	155	33.78(6.22)		
	결혼	-	-		6	33.00(6.45)		
교육수준	중졸이하	14	31.21(7.68)	b	27	32.00(5.99)		.94
	고졸	65	36.28(5.37)	a	123	33.65(5.80)		
	대졸이상	55	35.47(6.22)	a	112	33.99(7.90)		
본인종교	종교 유	91	35.71(5.31)		220	33.86(6.81)		1.27
	종교 무	43	34.79(7.63)	.72	42	32.40(6.66)		
배우자 종교	종교 유	100	35.55(5.78)		183	34.56(6.33)		3.47***
	종교 무	34	35.03(7.15)	.43	79	31.46(7.36)		
본인직업	직업 유	127	35.35(6.09)		130	33.44(7.10)		-44
	직업 무	7	36.57(7.23)	-5.1	132	33.81(6.50)		
배우자 직업	직업 유	51	35.94(5.84)		249	33.78(6.68)		1.60
	직업 무	83	35.10(6.32)	.77	13	30.69(8.42)		
본인소득	100만원 이하	7	37.00(7.53)	a	143	33.38(6.56)	ab	3.04*
	101~300만원	71	34.94(5.76)	a	78	32.76(6.66)	b	
	301~500만원	37	35.76(6.97)	a	38	35.71(7.51)	ab	
	501만원 이상	19	35.95(5.52)	a	3	41.33(2.89)	a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90	34.97(6.23)		13	29.38(8.32)	b	3.68*
	101~300만원	31	37.19(6.07)	1.20	124	33.01(6.55)	ab	
	301~500만원	12	34.17(5.27)		90	34.20(5.77)	a	
	501만원 이상	1	36.00		35	35.91(8.54)	a	
본인 여가활동	없다	12	35.83(8.07)	b	51	31.31(7.08)	b	5.84**
	1~2회	54	34.02(5.20)	ab	92	33.13(6.66)	ab	
	3회 이상	68	36.99(6.11)	a	119	35.00(6.50)	a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없다	30	32.70(6.61)	b	102	30.51(7.00)	b	21.79***
	1~2회	76	35.43(5.97)	ab	110	35.05(5.87)	a	
	3회 이상	28	38.29(4.77)	a	50	36.86(5.73)	a	
대화시간	10분 이하	42	33.98(6.68)	a	97	31.28(7.22)	b	9.08***
	10~30분	53	34.92(5.62)	a	78	33.64(5.93)	ab	
	30분~2시간	37	37.76(5.70)	a	66	35.92(5.94)	a	
	2시간 이상	2	35.50(7.78)	a	21	37.19(6.68)	a	
대화주제	일상생활	103	35.50(5.89)		206	33.98(6.41)	a	5.31***
	부부	1	42.00		10	37.30(9.29)	a	
	종교	10	38.90(5.00)	2.15	11	35.82(6.24)	a	
	재정 및 부모·친지	19	33.21(7.15)		32	30.56(6.52)	ab	
가족구성	기타	1	28.00		3	22.00(10.44)	b	1.09
	부부	7	36.86(6.26)		12	33.58(6.50)	a	
	부부+자녀	101	35.25(6.48)	.34	209	33.74(6.75)	a	
	조부모+부부+자녀	25	35.52(4.71)		33	33.97(6.53)	a	
병원 다니는 횟수	기타	1	40.00		8	29.38(9.30)	a	1.22
	안 간다	73	36.48(6.65)	a	156	33.84(6.78)	a	
	1~2회	57	34.04(4.71)	a	98	33.58(6.44)	a	
질병개수	3회 이상	4	35.75(11.35)	a	8	30.00(10.52)	a	5.07**
	없다	76	36.46(6.02)	a	144	34.76(6.71)	a	
	1가지	39	35.79(4.98)	a	76	32.67(6.68)	ab	
입원횟수	2가지 이상	19	30.47(6.63)	b	42	31.45(6.65)	b	1.20
	없다	116	35.49(5.84)		198	33.82(6.76)	a	
	1~3회	18	34.94(7.93)	.12	61	33.26(6.88)	a	
	4회 이상	-	-		3	28.00(6.56)	a	

*p<.05, **p<.01, ***p<.001

오는 배경변인은 교육수준($F=4.11, p<.05$), 본인 여가활동($F=4.97, p<.01$), 배우자와의 여가활동($F=6.51, p<.01$), 대화시간($F=2.79, p<.05$), 질병개수($F=8.14, p<.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부부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결혼상태($F=5.14, p<.01$), 배우자 종교($t=3.47, p<.01$), 본인소득($F=3.04, p<.05$), 배우자 소득($F=3.68, p<.05$), 본인 여가활동($F=5.84, p<.01$), 배우자와의 여가활동($F=21.79, p<.001$), 대화시간($F=9.08, p<.01$), 대화주제($F=5.31, p<.01$), 질병개수($F=5.07, p<.01$)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과 여성의 부부의사소통에서 공통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들은 본인여가활동,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대화시간, 질병개수이다. 본인의 여가활동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은 본인 여가활동이 많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따른 부부의사소통 역시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횟수가 많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화시간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을 보면, 대체로 10분 이하의 집단이 가장 낮은 부부의사소통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시간이 길수록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다는 연구(박성호, 2001)와 그 결과가 일치한다. 본인이 가진 질병개수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은 질병이 없는 집단과 질병이 2개 이상인 집단은 부부의사소통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부부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교육수준이었다.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은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졸 이하의 집단에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김진희,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부부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결혼상태, 배우자 종교, 본인소득, 배우자 소득, 대화주제로 나타나 중년기 기혼남성에서보다 부부의사소통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들이 많았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은 재혼, 초혼 집단과 별거 집단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 변인은 하위집단별 표집 사례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 변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에게 있어 배우자의 종교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은 배우자의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소득에 따른 부부의사소통 수준은 소득이 아주 적은 집단이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가장 낮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소득에 따른 부부의사소통 수준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화의 주제에 따라 중년기 기혼여성의 부부의사소통은 부부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이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재정 및 부모·친지에 대한 주제, 기타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은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연령, 막내자녀 위치, 교육수준, 본인 종교,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가족구성, 병원 다니는 횟수, 입원 횟수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중년기 기혼남성의 부부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배우자와의 여가활동($F=12.40, p<.001$), 대화주제($F=3.38, p<.05$), 중년기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결혼상태($F=8.04, p<.001$), 배우자 종교($t=3.78, p<.001$), 본인소득($F=5.98, p<.01$), 본인 여가활동($F=6.60, p<.01$), 배우자와의 여가활동($F=23.51, p<.001$), 대화시간($F=11.60, p<.001$), 대화주제($F=8.35, p<.001$), 가족구성($F=3.20, p<.05$), 질병개수($F=6.58, p<.01$)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과 여성의 부부친밀감에서 공통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들은 배우자와의 여가활동과 대화주제였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여가활동의 횟수가 많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화의 주제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서는 다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부부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이 부부친밀감 수준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종교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이 부부친밀감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재정 및 부모·친지에 대한 주제, 기타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은 부부친밀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부부친밀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결혼상태, 배우자 종교, 본인여가활동, 대화시간, 가족구성, 질병개수로 역시 중년기 기혼남성에서보다 부부친밀감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들이 많았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재혼, 초혼 집단과 별거 집단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부부의사소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변인은 하위집단별 표집 사례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 변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에게 있어 배우자의 종교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배우자의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부부친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득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부부친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시간에 따른 부부친밀감을 보면, 대체로 10분 이하의 집단이 가장 낮은 친밀감 수준을 보였다. 가족구성에서는 기타의 성원이 포함

<표 4>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차이

배경변인	남 성				여 성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t (F)값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t (F)값
연령	40~49세	44	54.84(9.48)		152	51.45(9.72)		.53
	50~59세	90	53.97(8.85)		110	51.33(11.00)		
결혼상태	초혼	133	54.34(9.01)		245	51.80(9.99)	a	1.57
	재혼	1	43.00		7	54.71(11.09)	a	
	별거	-	-		10	39.20(9.11)	b	
막내자녀 위치	고등학생	55	54.13(9.79)		101	50.84(10.77)	a	.02
	대학생·취업	79	54.34(8.53)		155	51.92(10.00)	a	
	결혼	-	-		6	47.50(7.87)	a	
교육수준	중졸이하	14	54.07(11.37)	a	27	50.44(9.37)	a	.11
	고졸	65	53.92(9.18)	a	123	51.10(8.99)	a	
	대졸이상	55	54.69(8.34)	a	112	51.96(11.72)	a	
본인 종교	종교 유	91	54.76(9.23)		220	51.64(10.43)		.94
	종교 무	43	53.19(8.61)		42	50.14(9.30)		
배우자 종교	종교 유	100	54.74(8.80)		183	52.93(9.53)		1.07
	종교 무	34	52.82(9.70)		79	47.85(11.04)		
본인 직업	직업 유	127	54.20(9.05)		130	52.10(10.55)		-31
	직업 무	7	55.29(9.38)		132	50.71(9.95)		
배우자 직업	직업 유	51	55.49(9.52)		249	51.68(10.16)		1.25
	직업 무	83	53.49(8.70)		13	46.00(11.11)		
본인 소득	100만원 이하	7	56.71(9.81)	a	143	50.37(9.50)	b	1.17
	101~300만원	71	53.39(9.43)	a	78	50.35(9.83)	b	
	301~500만원	37	53.84(7.68)	a	38	56.29(12.01)	ab	
	501만원 이상	19	57.37(9.56)	a	3	66.00(6.25)	a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90	53.39(8.61)		13	46.69(10.86)		1.41
	101~300만원	31	56.13(10.33)		124	50.81(10.14)		
	301~500만원	12	54.83(8.08)		90	51.47(8.68)		
	501만원 이상	1	67.00		35	55.09(13.15)		
본인 여가 활동	없다	12	51.25(6.57)		51	47.55(9.96)	b	2.57
	1~2회	54	52.81(8.04)		92	50.78(10.24)	ab	
	3회 이상	68	55.93(9.88)		119	53.53(9.92)	a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없다	30	49.47(9.28)	b	102	46.55(10.29)	b	12.40***
	1~2회	76	53.91(7.84)	b	110	53.59(9.16)	a	
	3회 이상	28	60.32(8.65)	a	50	56.48(8.35)	a	
대화시간	10분 이하	42	52.83(9.15)		97	47.38(10.21)	b	1.04
	10~30분	53	53.89(8.27)		78	51.54(9.99)	ab	
	30분~2시간	37	56.22(9.99)		66	55.36(8.79)	a	
	2시간 이상	2	57.50(3.54)		21	57.00(8.59)	a	
대화주제	일상생활	103	54.17(8.50)	a	206	51.81(9.57)	a	3.38*
	부부	1	67.00	a	10	57.90(13.86)	a	
	종교	10	61.60(7.17)	a	11	59.45(7.69)	a	
	재정 및 부모·친지	19	50.68(10.52)	ab	32	45.59(9.79)	ab	
	기타	1	45.00	b	3	34.00(10.54)	b	
가족구성	부부	7	60.29(14.42)		12	51.75(8.88)	a	2.55
	부부+자녀	101	54.07(8.10)		209	51.45(10.29)	a	
	조부모+부부+자녀	25	52.64(10.10)		33	53.45(8.87)	a	
	기타	1	71.00		8	41.13(12.25)	b	
병원 다니는 횟수	안 간다	73	55.67(8.79)	a	156	52.20(10.25)	a	2.22
	1~2회	57	52.75(8.80)	a	98	50.51(9.84)	a	
	3회 이상	4	49.75(14.01)	a	8	46.75(14.32)	a	
질병 개수	없다	76	54.97(8.97)	a	144	53.44(9.58)	a	1.77
	1가지	39	54.59(8.51)	a	76	48.82(10.69)	b	
	2가지 이상	19	50.68(9.96)	a	42	49.10(10.41)	b	
입원 횟수	없다	116	54.08(8.88)		198	51.71(10.52)	a	.33
	1~3회	18	55.39(10.15)		61	50.74(9.53)	a	
	4회 이상	-	-		3	44.67(4.93)	a	

*p<.05, **p<.01, ***p<.001

된 가족구성 형태에서 중년기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본인이 가진 질병의 개수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질병이 없는 집단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연령, 막내자녀 위치, 교육수준, 본인 종교,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배우자소득, 병원 다니는 횟수, 입원 횟수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

먼저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교육($F=3.49, p<.05$), 본인소득($F=3.65, p<.05$), 대화주제($F=6.40, p<.001$), 질병개수($F=3.33, p<.05$),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결혼상태($F=4.00, p<.05$), 막내자녀 위치($F=3.57, p<.05$), 본인 종교($t=2.27, p<.05$), 배우자 종교($t=3.52, p<.001$), 본인 여가활동($F=6.07, p<.01$), 배우자와의 여가활동($F=8.32, p<.001$), 대화시간($F=3.67, p<.05$), 대화주제($F=4.75, p<.001$)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과 여성의 생활만족도에서 공통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유일한 배경변인은 대화주제였다. 대화의 주제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서는 부부친밀감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부부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이 생활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종교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남성들에게서는 기타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여성들에게서는 재정 및 부모·친지에 대한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교육, 본인소득, 질병개수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대졸 이상에서 높았고, 중졸 이하는 낮게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 본인의 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에서 특이한 점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라고 해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지 않았으나 유의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조옥희, 2004)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본인이 가진 질병개수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즉 질병이 1가지 있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후속연구에서 추후로 검증

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결혼상태, 막내자녀 위치, 배우자 종교, 본인여가활동,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대화시간, 대화주제로 역시 중년기 기혼남성에서보다 생활만족도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들이 많았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재혼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결과는 앞의 부부의사소통이나 부부친밀감과 마찬가지로 사례수 불균형으로 인해 결혼상태의 영향력 평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막내자녀 위치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가장 낮았고 대학생일 때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신기영, 1999)에서 막내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대학생과 취업·결혼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에게 있어 본인 종교와 배우자 종교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본인 종교와 배우자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여가활동에 따른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본인 여가활동이 많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서는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없는 집단이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을 갖는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대화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보면, 10분 이하의 집단과 2시간 이상의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화주제에 따른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종교에 대해 대화하는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재정 및 부모·친지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에, 연령, 본인 종교,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배우자 소득, 가족구성, 병원 다니는 횟수, 입원 횟수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우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중년기 기혼남성의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배우자와의 여가활동($F=5.25, p<.01$), 대화주제($F=3.27, p<.05$), 질병개수($F=4.99, p<.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결혼상태($F=3.16, p<.05$), 배우자 종교($t=-2.41, p<.05$), 본인 여가활동($F=5.28, p<.01$), 배우자와의 여가활동($F=8.03, p<.001$), 대화시간($F=2.70, p<.05$), 질병개수($F=5.20, p<.01$)로 나타났다.

<표 5>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생활만족도)의 차이

배경변인	남 자				여 자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t (F)값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t (F)값
연령	40~49세	44	36.64(8.35)		152	36.57(8.16)		-1.49
	50~59세	90	36.96(7.58)	-22	110	38.04(7.51)		
결혼상태	초혼	133	36.92(7.79)		245	37.36(7.82)	ab	4.00*
	재혼	1	27.00	1.61	7	40.14(5.18)	a	
	별거	-	-		10	30.70(9.30)	b	
막내자녀 위치	고등학생	55	35.44(8.17)		101	35.58(8.23)	a	3.57*
	대학생·취업	79	37.84(7.44)	3.11	155	38.25(7.57)	a	
	결혼	-	-		6	36.50(7.87)	a	
교육수준	중졸이하	14	32.93(7.42)	b	27	38.26(8.53)	a	.29
	고졸	65	36.22(7.70)	ab	123	36.97(7.79)	a	
	대졸이상	55	38.60(7.68)	a	112	37.16(7.95)	a	
본인 종교	종교 유	91	37.27(7.76)		220	37.66(7.81)		2.27*
	종교 무	43	35.95(7.94)	.91	42	34.67(8.07)		
배우자 종교	종교 유	100	36.89(8.12)		183	38.37(7.28)		3.52***
	종교 무	34	36.74(6.93)	.10	79	34.44(8.67)		
본인 직업	직업 유	127	36.83(7.63)		130	37.00(8.15)		-.37
	직업 무	7	37.14(11.35)	-1.0	132	37.36(7.70)		
배우자 직업	직업 유	51	37.12(7.99)		249	37.20(7.96)		.19
	직업 무	83	36.69(7.74)	.31	13	36.77(7.18)		
본인소득	100만원 이하	7	40.00(11.24)	a	143	36.57(8.17)	a	1.79
	101~300만원	71	35.25(7.77)	a	78	37.09(7.36)	a	
	301~500만원	37	37.03(6.93)	a	36	39.18(7.88)	a	
	501만원 이상	19	41.32(6.52)	a	3	43.67(6.51)	a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90	36.19(7.51)		13	35.92(8.65)	a	.18
	101~300만원	31	38.10(9.48)		124	37.06(7.73)	a	
	301~500만원	12	37.83(4.45)	1.00	90	37.32(7.74)	a	
	501만원 이상	1	46.00		35	37.71(8.98)	a	
본인 여가 활동	없다	12	35.08(8.03)	a	51	34.51(9.69)	b	6.07***
	1~2회	54	35.33(8.42)	a	92	36.52(6.86)	ab	
	3회 이상	68	38.37(7.04)	a	119	38.84(7.50)	a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없다	30	35.40(8.08)	a	102	34.81(9.04)	b	8.32***
	1~2회	76	36.70(7.92)	a	110	38.32(7.05)	a	
	3회 이상	28	38.82(7.02)	a	50	39.52(5.87)	a	
대화시간	10분 이하	42	35.81(7.02)	a	97	35.63(8.80)	b	3.67*
	10~30분	53	36.58(7.99)	a	78	36.82(6.92)	ab	
	30분~2시간	37	38.00(8.32)	a	66	38.79(7.60)	ab	
	2시간 이상	2	44.50(7.78)	a	21	40.67(6.40)	a	
대화주제	일상생활	103	36.56(7.36)		206	37.46(7.60)	a	4.75***
	부부	1	50.00		10	39.30(7.27)	a	
	종교	10	46.10(3.41)	6.40***	11	43.27(6.42)	a	
	재정 및 부모·친지	19	33.21(7.98)		32	32.66(8.75)	a	
가족구성	기타	1	30.00		3	37.00(8.00)	a	1.33
	부부	7	35.29(11.53)		12	38.50(8.31)	a	
	부부+자녀	101	37.21(7.19)	.58	209	37.37(7.84)	a	
	조부모+부부+자녀	25	35.60(9.20)		33	36.76(7.29)	a	
병원 다니는 횟수	기타	1	43.00		8	32.00(10.99)	a	1.15
	안 간다	73	37.16(8.24)	a	156	37.62(8.20)	a	
	1~2회	57	36.39(7.26)	a	98	36.31(7.51)	a	
질병개수	3회 이상	4	37.75(9.00)	a	8	39.38(6.61)	a	2.18
	없다	76	36.75(8.31)	ab	144	38.10(7.83)	a	
	1가지	39	38.79(6.81)	a	76	36.18(7.99)	a	
입원횟수	2가지 이상	19	33.26(6.57)	b	42	35.86(7.86)	a	.57
	없다	116	36.95(7.74)		198	37.40(7.79)	a	
	1~3회	18	36.22(8.44)	.13	61	36.66(8.39)	a	
	4회 이상	-	-		3	33.33(7.02)	a	

*p<.05, **p<.01, ***p<.001

<표 6>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우울)의 차이

배경변인	남 자				여 자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t (F)값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t (F)값
연령	40~49세	44	21.80(5.55)		152	22.95(6.79)		.56
	50~59세	90	21.12(5.69)		110	22.51(5.84)		
결혼상태	초혼	133	21.33(5.65)		245	22.58(6.29)	a	.09
	재혼	1	23.00		7	22.14(5.31)	a	
	별거	-	-		10	27.70(8.33)	a	
막내자녀 위치	고등학생	55	21.76(5.76)		101	22.71(6.34)	a	.52
	대학생·취업	79	21.05(5.56)		155	22.61(6.36)	a	
	결혼	-	-		6	27.67(7.76)	a	
교육수준	중졸이하	14	23.57(6.57)	a	27	23.48(6.48)	a	1.33
	고졸	65	21.29(5.66)	a	123	22.50(6.62)	a	
	대졸이상	55	20.84(5.32)	a	112	22.88(6.17)	a	
본인 종교	종교 유	91	21.20(5.53)		220	22.53(6.34)		-1.34
	종교 무	43	21.65(5.89)		42	23.98(6.68)		
배우자 종교	종교 유	100	21.34(5.74)		183	22.14(6.44)		-2.41*
	종교 무	34	21.35(5.40)		79	24.20(6.11)		
본인 직업	직업 유	127	21.46(5.52)		130	22.91(6.49)		.36
	직업 무	7	19.29(7.65)		132	22.62(6.33)		
배우자 직업	직업 유	51	21.90(5.88)		249	22.72(6.45)		-0.90
	직업 무	83	21.00(5.48)		13	23.62(5.58)		
본인 소득	100만원 이하	7	19.00(9.04)	a	143	23.05(6.70)	a	1.01
	101~300만원	71	21.94(5.51)	a	78	22.94(5.43)	a	
	301~500만원	37	21.30(5.21)	a	38	21.37(7.18)	a	
	501만원 이상	19	20.05(5.44)	a	3	22.33(4.62)	a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90	21.51(5.51)		13	22.77(7.34)	a	1.48
	101~300만원	31	21.52(6.29)		124	23.13(7.09)	a	
	301~500만원	12	20.58(4.23)		90	22.41(5.39)	a	
	501만원 이상	1	10.00		35	23.37(6.04)	a	
본인 여가 활동	없다	12	22.25(7.55)	a	51	24.96(7.93)	a	.43
	1~2회	54	21.67(5.47)	a	92	23.07(4.97)	ab	
	3회 이상	68	20.93(5.44)	a	119	21.59(6.43)	b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없다	30	23.77(6.13)	a	102	24.68(7.48)	a	5.25**
	1~2회	76	21.20(5.56)	ab	110	21.74(5.12)	b	
	3회 이상	28	19.14(4.28)	b	50	21.12(5.65)	b	
대화시간	10분 이하	42	20.88(6.08)	a	97	24.04(7.25)	a	.55
	10~30분	53	21.96(5.63)	a	78	22.55(6.14)	a	
	30분~2시간	37	21.16(5.20)	a	66	21.86(5.29)	a	
	2시간 이상	2	18.00(5.66)	a	21	20.48(5.45)	a	
대화주제	일상생활	103	21.50(5.19)		206	22.69(6.46)	a	3.27*
	부부	1	16.00		10	21.50(5.40)	a	
	종교	10	16.20(4.87)		11	20.27(4.27)	a	
	재정 및 부모·친지	19	23.53(6.95)		32	24.69(6.85)	a	
가족구성	기타	1	20.00		3	20.67(3.79)	a	1.41
	부부	7	19.00(6.38)		12	22.58(8.58)	a	
	부부+자녀	101	21.60(5.73)		209	22.60(6.16)	a	
	조부모+부부+자녀	25	21.32(4.82)		33	23.03(6.42)	a	
병원 다니는 횟수	기타	1	12.00		8	26.25(8.99)	a	.86
	안 간다	73	20.67(5.80)	a	156	22.27(6.53)	a	
	1~2회	57	22.25(5.32)	a	98	23.44(6.23)	a	
질병 개수	3회 이상	4	20.75(6.75)	a	8	24.13(5.67)	a	4.99**
	없다	76	20.53(5.23)	b	144	21.81(6.48)	b	
	1가지	39	21.18(5.56)	b	76	23.18(5.88)	ab	
입원 횟수	2가지 이상	19	24.95(6.21)	a	42	25.29(6.42)	a	1.46
	없다	116	21.11(5.25)		198	22.50(6.10)	a	
	1-3회	18	22.83(7.68)		61	23.52(7.39)	a	
	4회 이상	-	-		3	24.67(3.22)	a	

*p<.05, **p<.01, ***p<.001

중년기 기혼남성과 여성의 우울에서 공통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은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질병개수였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따른 우울에서는 대체로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없는 집단이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을 갖는 집단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공유도와 우울을 살펴본 선행연구(조옥희, 2004)에서 여가 공유가 거의 없는 집단에서 우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거의 매일 여가 공유를 하는 집단에서 우울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질병 개수에 따른 우울은 질병이 없는 집단이 우울이 낮았으며, 질병 개수가 많은 집단에서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건강상태 지각과 우울감을 살펴본 선행연구(조옥희, 2004)에서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우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대화주제로 나타났다. 대화의 주제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성의 우울에서는 부부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이 우울 수준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종교를 대화로 하는 집단이었으나, 재정 및 부모·친지에 대한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의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결혼상태, 배우자 종교, 본인여가활동, 대화시간으로 역시 중년기 기혼남성에서보다 우울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들이 많았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우울은 별거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결과도 또한 앞의 생활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사례수 불균형으로 인해 결혼상태의 영향력 평가는 한계를 지니리라고 보인다. 중년기 기혼여성들에게 있어 배우자의 종교에

따른 우울은 배우자의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여가활동에 따른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은 본인 여가활동이 없는 집단이 본인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화시간에 따른 우울을 보면, 배우자와 대화시간이 긴 집단에서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 연령, 막내자녀 위치, 교육수준, 본인 종교,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보인 소득, 배우자소득, 가족구성, 병원 다니는 횟수, 입원 횟수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우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배경변인¹⁾,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의 순서로 중년기 기혼남녀 전체와 남녀별로 상관계수 산출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공차한계는 0.1보다 큰 0.8의 점수대였으며, 분산팽창요인은 10보다 훨씬 작은 1점대의 점수들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표 7>,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표 7>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와 각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1. 교육수준	1						
2. 본인소득	-.44**	1					
3. 대화주제	-.08	-.05	1				
4. 질병개수	.01	-.01	-.12	1			
5. 의사소통	-.01	.03	.18*	-.29**	1		
6. 친밀감	-.04	.09	.26**	-.14	.54**	1	
7. 생활만족도	-.19*	.19*	.37**	-.08	.49**	.54**	1

*p<.05, **p<.01

가변인: 교육수준-고졸이하=1 나머지=0, 대화주제-부부+종교=1 나머지=0

1) 배경변인 중 가변인의 처리는 앞에서의 일원분산 분석에서 나온 집단 차이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표 8>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각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결혼상태	1										
2. 막내자녀	.01	1									
3. 본인종교	.03	-.06	1								
4. 배우자종교	-.09	-.11	.57**	1							
5. 본인여가	-.09	-.07	.01	.12	1						
6. 배우자와 여가	-.19**	-.06	-.03	.13*	.49**	1					
7. 대화시간	-.21**	.01	-.07	.02	.18**	.37**	1				
8. 대화주제	-.06	.08	.09	.13*	.05	.04	.09	1			
9. 의사소통	-.19**	-.02	.08	.21**	.21**	.37**	.31**	.13*	1		
10. 친밀감	-.24**	-.04	.05	.23**	.22**	.38**	.34**	.21**	.68**	1	
11. 생활만족도	-.16**	-.16**	.14*	.23**	.21**	.24**	.20**	.16*	.53**	.56**	1

*p<.05, **p<.01

가변인: 결혼상태-별거=1 나머지=0, 막내자녀-고등학생=1 나머지=0, 본인종교-유=1 무=0, 배우자종교-유=1무=0, 대화주제-부부+종교=1 나머지=0

<표 9> 중년기 기혼남성의 우울과 각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1. 배우자와 여가	1					
2. 대화주제	.13	1				
3. 질병개수	-.19*	-.12	1			
4. 의사소통	.30**	.18*	-.29**	1		
5. 친밀감	.40**	.26**	-.14	.54**	1	
6. 우울	-.27**	-.28**	.24**	-.45**	-.40**	1

*p<.05, **p<.01

가변인: 대화주제-부부+종교=1 나머지=0

<표 10>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과 각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 결혼상태	1								
2. 배우자 종교	-.09	1							
3. 본인 여가	-.09	.12	1						
4. 배우자와 여가	-.19**	.13*	.49**	1					
5. 대화시간	-.21**	.02	.18**	.37**	1				
6. 질병개수	.02	.01	-.09	-.19**	-.11	1			
7. 의사소통	-.19**	.21**	.21**	.37**	.31**	-.19**	1		
8. 친밀감	-.24**	.23**	.22**	.38**	.34**	.20**	.68**	1	
9. 우울	.15*	-.15*	-.20**	-.23**	-.17**	.20**	-.51**	-.42**	1

*p<.05, **p<.01

가변인: 결혼상태-별거=1 나머지=0, 배우자종교-유=1무=0

1)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왔던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인 교육수준, 본인 소득, 대화주제, 질병개수와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참조).

그 결과, 배경변인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I에서는 대화주제($\beta=2.29, p<.001$)가 유의한 영향($R^2=.19, F=6.18, p<.001$)

을 미치고, 부부의사소통을 추가한 Model II에서는 대화주제($\beta=2.05, p<.001$)와 부부의사소통($\beta=.10, p<.001$)이 유의한 영향($R^2=.37, F=6.18, p<.001$)을 미친다. 배경변인과 부부의사소통에 부부친밀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Model III에서는 전체 설명력이 Model II에서보다 7% 증가하여 44%의 설명력($F=16.47,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대화주제($\beta=1.98, p<.01$), 부부의사소통($\beta=.10, p<.01$), 부부친밀감($\beta=.07, p<.001$)의 순이다. 이 결과 중 주목을 끄는 것은 배경변인 중 대화주제로서 이 변인은 부부간 심리정서적인 변수인 부부의사소통이나 부부친밀감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혼남성의 생활만족

<표 11> 중년기 기혼남성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Model I	Model II	Model III
	B(β)	B(β)	B(β)
배경변인			
교육수준	-1.32(1.41)	-1.54(1.25)	-1.63(1.18)
본인소득	1.64(.87)	1.41(.77)	1.13(.73)
대화주제	10.42(2.29)***	8.41(2.05)***	6.81(1.98)**
질병개수	-.33(.86)	.99(.79)	.88(.75)
부부의사소통		.58(.10)***	.37(.10)**
부부친밀감			.28(.07)***
R ²	.19	.37	.44
Adj R ²	.16	.34	.41
ΔR^2		.18	.07
F 값	7.32***	14.93***	16.47***

*p<.05, **p<.01, ***p<.001

가변인: 교육수준-고졸이하=1 나머지=0, 대화주제-부부+종교=1 나머지=0

<표 12> 중년기 기혼여성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Model I	Model II	Model III
	B(β)	B(β)	B(β)
배경변인			
결혼상태	-3.77(2.46)	-2.19(2.21)	-1.17(2.13)
막내자녀 위치	-2.27(.95)*	-2.30(.85)**	-2.16(.81)**
본인종교	1.18(1.53)	1.16(1.37)	1.52(1.31)
배우자 종교	2.35(1.25)	1.04(1.13)	.44(1.09)
본인 여가	1.06(.69)	.95(.61)	.91(.59)
배우자와 여가	.98(.76)	-.26(.70)	-.60(.67)
대화시간	1.03(.51)*	.30(.47)	.01(.45)
대화주제	3.50(1.71)*	2.54(1.53)	1.41(1.49)
부부의사소통		.55(.07)***	.33(.08)***
부부친밀감			.26(.06)***
R ²	.16	.34	.39
Adj R ²	.14	.31	.37
ΔR^2		.17	.06
F 값	6.18***	14.14***	16.10***

*p<.05, **p<.01, ***p<.001

가변인: 결혼상태-별거=1 나머지=0, 막내자녀-고등학생=1 나머지=0, 본인종교-유=1 무=0, 배우자종교-유=1 무=0, 대화주제-부부+종교=1 나머지=0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남성에서는 부부와 종교를 주제로 대화하는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왔던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인 결혼상태, 막내자녀 위치, 본인 종교, 배우자 종교, 본인 여가, 배우자와 여가, 대화시간, 대화주제와 부부의사소통, 그리고 부부친밀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참조).

그 결과, 배경변인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I에서는 대화주제($\beta=1.71, p<.05$), 막내자녀 위치($\beta=.95, p<.05$), 대화시간($\beta=.51, p<.05$)이 유의한 영향($R^2=.16, F=6.18, p<.001$)을 미치고, 부부의사소통을 추가한 Model II에서는 막내자녀 위치($\beta=.85, p<.01$)와 부부의사소통($\beta=.07, p<.001$)이 유의한 영향($R^2=.34, F=14.14, p<.001$)을 미친다. 배경변인과 부부의사소통에 부부친밀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Model III에서는 전체 설명력이 Model II에서보다 5% 증가하여 39%의 설명력($F=16.10,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막내자녀 위치($\beta=.81, p<.01$), 부부의사소통($\beta=.08, p<.001$), 부부친밀감($\beta=.06, p<.001$)의 순이다. 이 결과 중 주목을 끄는 것은 배경변인 중 막내자녀 위치로서 이 변인은 부부 간 다른 추가 변수인 부부의사소통이나 부부친밀감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여성에서는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일차

적 책임을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하면,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은 남녀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중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 관심, 존경, 애정, 지식,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부부의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옥선화·정민자, 199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부친밀감도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조옥희, 2004)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2)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기 기혼남성의 우울에 관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에 차이를 가져왔던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인 배우자와 여가, 대화주제, 질병개수와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3> 참조).

그 결과, 배경변인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I에서는 대화주제($\beta=1.67, p<.01$), 배우자와 여가($\beta=.70, p<.05$), 질병

<표 13> 중년기 기혼남성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Model I	Model II	Model III
	B(β)	B(β)	B(β)
배경변인			
배우자와 여가	-1.79(.70)*	-1.08(.68)	-.73(.71)
대화주제	-4.62(1.67)**	-3.74(1.58)*	-3.23(1.60)*
질병개수	1.33(.64)*	.71(.62)	.78(.61)
부부의사소통		-.32(.08)***	-.25(.09)**
부부친밀감			-.10(.06)
R ²	.16	.26	.28
Adj R ²	.14	.24	.25
Δ R ²		.10	.02
F 값	8.28***	11.45***	9.89***

*p<.05, **p<.01, ***p<.001

가변인: 대화주제-부부+종교=1 나머지=0

<표 14> 중년기 기혼여자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Model I	Model II	Model III
	B(β)	B(β)	B(β)
배경변인			
결혼상태	3.20(2.03)	1.86(1.85)	1.55(1.85)
배우자 종교	-1.70(.83)*	-.57(.77)	-.41(.77)
본인 여가	-.89(.57)	-.80(.51)	-.78(.51)
배우자와 여가	-.65(.64)	.22(.59)	.31(.59)
대화시간	-.59(.42)	-.01(.39)	.08(.39)
질병개수	1.37(.51)**	.87(.47)	.82(.47)
부부의사소통		-.43(.06)***	-.37(.07)***
부부친밀감			-.08(.05)
R ²	.12	.28	.29
Adj R ²	.10	.26	.27
Δ R ²		.16	.01
F 값	5.67***	14.13***	12.76***

*p<.05, **p<.01, ***p<.001

가변인: 결혼상태-별거=1 나머지=0, 배우자종교-유=1무=0

개수(β=.64, p<.05)가 모두 유의한 영향(R²=.16, F=8.28, p<.001)을 미치고, 부부의사소통을 추가한 Model II에서는 대화주제(β=1.58, p<.001)와 부부의사소통(β=.08, p<.001)이 유의한 영향(R²=.26, F=11.45, p<.001)을 미친다. 배경변인과 부부의사소통에 부부친밀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Model III에서는 전체 설명력이 Model II에서보다 2% 증가하여 28%의 설명력(F=9.89,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살펴보면, 대화주제(β=1.60, p<.05), 부부의사소통(β=.09, p<.01)이고 부부친밀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배경변인 중 대화주제로서 이 변인은 부부간 심리정서적인 변수인 부부의사소통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혼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의사소통 수준은 높을수록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올라가나 부부친밀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다음,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에 관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에 차이를 가져왔던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인 결혼상태, 배우자 종교, 본인 여가, 배우자와 여가, 대화시간, 질병개수와 부부의사소통, 그리고 부부친밀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4> 참조).

그 결과, 배경변인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I에서는 배우자종교(β=.83, p<.05), 질병개수(β=.51, p<.01)가 유의한 영향(R²=.12, F=5.67, p<.001)을 미치고, 부부의사소통을 추가한 Model II에서는 부부의사소통(β=.06, p<.001)만이 유의한 영향(R²=.28, F=14.13, p<.001)을 미친다. 배경변인과

부부의사소통에 부부친밀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Model III에서는 전체 설명력이 Model II에서보다 단지 1% 증가하여 29%의 설명력(F=12.76,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Model III에서는 Model II와 마찬가지로 부부의사소통(β=.07, p<.001)만이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종합하면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Model III에서 부부친밀감을 추가해도 부부의사소통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배경변인도 상대적으로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년기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부부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하면, M우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부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이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나 중년기 기혼남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강조하고 중점을 둘 부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의 관계적 요소를 반영하는 변인들인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 변인들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봄으로써 부부상담 및 부부치료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결론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는 모두 중간 수준을 상회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년기 기혼남녀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원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념적으로 인식되는 중년의 위기론적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추정된다.

부부의사소통 수준과 부부친밀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생활만족도는 남녀 차이가 없고 우울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혼남성들은 부부간 관계나 결혼만족의 지각에 있어서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김미라, 2001; 김요완, 2000; 박성호, 2006; 양진선, 2004; 이경희, 1995, 1998; 허윤정,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나 부부친밀감을 남성들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발달적 차원에서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 우울감을 더 예민하게 지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김명자, 1989, 1998).

둘째, 배경변인에 따라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심리적 복지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에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본인 여가, 배우자와 여가, 대화시간, 질병개수이며, 부부친밀감에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배우자와 여가, 대화주제이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대화주제이며, 우울에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배우자와 여가, 질병개수이다.

이를 종합해서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본인 여가 활동이 부부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또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이 부부의사소통이나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우울감을 낮추는 것은 당연한 측면으로도 보이는데, 즉 본인이 여가활동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중년기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만큼 부부관계에 투자할 여유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는 부부친밀감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은 여가가 정신적 긴장의 이완과 연관이 되고 또 배우자가 함께 여가를 보내면서 관계 향상과 더불어 삶의 행복감이 증진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인 조옥희(2004)의 연구에서 여가 공유가 거의 없는 집단에서 우울이 가장 높게 지각되고 거의 매일 여가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우울이 가장 낮게 나타난 사실도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부 간에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박성호(2001)는 대화시간이 길수록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질병개수는 없을수록 부부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질병을 가질 경우 그만큼 경제적·물질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른 심리적인 관계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대화주제는 부부나 종교 등을 대화로 할 때 대화주제가 부부나 종교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재정 및 부모·친지 등이나 일상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영역들이 중년기 기혼남녀에게 있어서 부부관계 그 자체나 본인들의 신앙생활보다는 통제하기가 어렵고, 친·인척관계에 의한 심리적·물질적 부담이나 영향은 중년기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후의 중년기는 후속세대에 대한 양육부담과 더불어 노년기부모 등에 대한 부양부담을 저야 하는 '협공받는 세대(sandwich generation)'로 인식되는데(김애순, 1993), 이러한 세대적 특성으로 인해 재정이나 친·인척관계, 일상생활에 관한 주제로 주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데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부부친밀감, 부부의사소통은 심리적 복지에 상대적으로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

먼저, 심리적 복지 중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중년기 기혼남녀에게서 가장 주목을 끄는 변수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대화주제이다. 즉 중년기 기혼남성들은 대화주제가 재정, 친·인척 문제 중심이 될 때 생활만족도가 낮다고 지각하고 있다. 대화주제가 재정이나 친·인척 중심으로 될 때 남성들이 생활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현상은 중년기가 재정적 규모나 지출이 커지는 시기이고 부양 부담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때 일차적인 부양 부담자로 인식되는 남성들이 이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막내자녀의 위치이다. 중년기 기혼 여성에게 있어서는 막내자녀가 고등

학생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이 부담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의사소통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한 변수로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의 표현적 의사소통을 통해 행복감이 증진되거나(육선화·정민자, 1995)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의 제고에 기여함으로써(박성호, 2001; 박민지, 2006; 이정은·이영호, 2000; 임영란, 1992; 허윤정, 1997; Jacobson & Magolin, 1979; Lewis & Spanier, 1979),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결혼생활의 질 향상이나 삶의 행복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로서 부부의사소통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김경신·박은주, 1996; 김미라, 2001; 박민지, 2006; Noeller & Fitzpatrick, 1990).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부부친밀감이 확고해지면 중년기에 있는 기혼남녀들은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느끼고 이를 토대로 삶에 대한 만족감도 증진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음, 심리적 복지 중 우울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가장 주목을 끄는 변수는 부부의사소통이다. 부부의사소통은 중년기 기혼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다. 이를 통해 부부의사소통은 중년기 부부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입증되었는데, 부부 간에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부부의사소통은 다른 가족 발달과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특히 심리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변화의 전이기로 인식되는 중년기에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위한 부부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부부상담 및 치료에서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강조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대화주제는 중년기 기혼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대화주제가 재정이나 친·인척 중심으로 될 때 남성들이 우울이 높게 지각되는 현상은 중년기의 재정적 부담이나 부양 부담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남성에게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중년기는 부부관계에 대한 재평가의 시기로 부부관계적인 요소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부의사소통은 부부만족과 직결되고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여 신뢰감을 증진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부친밀감도 이와 더불어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관계적 요소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중년기 기혼남녀에게 있어서 부부의사소통 수준과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 증진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의 중년기 기혼남녀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 있어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중년기 기혼남녀의 차이는 검증하였으나, 부부 상호 간의 영향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과정은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의사소통이나 부부친밀감의 상호적 관계분석, 결혼상태별 하위집단의 사례수를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 이 변인의 중년기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관계 규명 등은 후속연구에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해 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부부관계 요소인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의사소통이 선행연구들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 배경변인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중년기에 다시금 부각되는 부부관계의 심리·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심리적 복지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남성 혹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를 설명하는 관련변인들을 검증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 상담과 치료의 사정과 계획에 있어서 부부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아울러 남녀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12월 01일
- 심사일 : 2007년 02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6월 21일

【참 고 문 헌】

- 김경민(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김정란(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4), 1-16.
- 김경신·박은주(1996). 효과적인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 6, 111-122.
-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미라(2001). 부부친밀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2001).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화(2002). 도시부부의 생활예절 수행·가족체계 역동성·심리적 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요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 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민(2003). 중년기 남성의 일·가족 역할수행 부담 및 심리적 복지.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1998).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김양호(2003). 중년 남성의 남성역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8(1), 99-120.
- 박민지(2006).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호(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희(2004).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관계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아(1998).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혜선(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가정관리 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선(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선화·정민자(1995).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이경화(2003).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건강상태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 중년기 성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2003). 이혼한 한부모가 지각한 부모역할 보상과 비용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나(2000). *흔들리는 중년 두렵지 않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 이선미(2001).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심리*, 19(3), 531-548.
- 이주희(1999). 취업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자아존중감 및 성역할정체감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영란(1992). 한국개신교 교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정(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2001). 디지털 시대, 협공 받는 중년기가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0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3-45.
-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옥희(200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과 가족

- 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5.
- 통계청(1995).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2000).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2005).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 허윤정(1997). *부부 관계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yant, F. B. & Ver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Horowitz, L. M.(1979).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Jacobson, N. S. & Magolin, G.(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nhancing principles*. N.Y.: Brenner.
-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269-273.
- Moss, B. & Schwebel, A.(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Noller, P. & M. A. Fitzpatrick(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32-843.
- Waring, E. M.(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85-192.
- Waring, E. M. & Chelune, G. J.(1983). Marital intimacy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2)*, 183-190.